

서학의 사다리와 지식장

차태근(인하대학교)

I. 서론

19세기 이후 서학은 중국 지식구조와 문화의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서학이 중국의 지식과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량치차오(梁啟超)는 1922년 일찍이 유명한 3단계론으로 요약한 바 있다. 즉 기물(器物)-제도(制度)-문화(文化)의 3단계는 바로 서학동점의 내용상의 진화를 말하며, 각각 양무-무술-5.4운동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중심내용을 이룬다는 것이다.¹⁾ 이러한 관점은 지금도 여전히 19세기 이후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인식모델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코헨(P. A. Cohen)은 량치차오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19세기 이후 중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특히 중국 내부의 다양한 편차를 무시한 전체적 중국관을 비판하였다. 즉 중국은 연해안과 내륙 사이에 지식과 학술상의 편차가 심하여 이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²⁾ 이러한 관점은 이후 왕룽주(汪榮祖)에 의해 청말시기 변법운동을 분석하는데 적용되었다. 다만 왕룽주는 코헨이 연해안 지역을 홍콩-마카오-광저우로 국한시켜 기타지역과 구분하던 것을 더 세분하여 광둥-푸젠 연해안 지역과 상하이 중심지역, 그리고 후난-후베이 유역과 베이징-톈진지역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 있다.³⁾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19세기 중국 사상과 학술의 다양한 면모와 지역적 편차를 보여주는 한편, 중국의 변혁은 단순히 연해안 지역의 지식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륙지식인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전통 유가 학술의 변화와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연계시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양넨첸(楊念群)은 유학의 지역적 성격 편차와 그 지식인을 연계하여 19세기 중국 변법주체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⁴⁾ 양넨첸의 이러한 분석은 지역별 지식집단의 성향을 그 지역의 학문적 특성과 결부시키고 있는 점에서 19세기 중국의 다양한 지역 지식인들이 보여준 서학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유익하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량치차오 등의 단일적 중국 상(像)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지만, 지역성만으로 한 지식인의 지적 성향이나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코헨이 또 다른 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연해안 지역의 지식인이라도 서로 다른 사유 패턴과 행동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⁵⁾ 그렇다고 이를 단지 연해안 지역의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존(즉 전통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이를 설명하려면 결국 각각 개별적 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 다른 보충적인 결정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기의 지역성 외에 계층성을 도입함과 동시에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형성하는 시스템내지 개인적 인적 네트워크를 해석요소로 삼는 것

1) 梁啟超, 「五十年中國進化概論」, 『最近五十年: 申報館五十周年紀念』, 申報館, 1922, 1-5쪽.

2)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제4장 참고.

3) 汪榮祖, 「論晚清變法思想之淵源與發展」, 『從傳統中求變-晚清思想史研究』, 百花洲文藝出版社, 2002, 47-74쪽.

4) 楊念群, 『儒學地域化的近代形態-三大知識群體互動的比較研究』, 三聯書店, 1997.

5) Paul A. Cohe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p. 272-273.

이다. 여기서 계층성은 사회적 공간과 지식 공간 속에 처해있는 위치를 말한다. 근대 사회와 같이 사회적 분업이 고도화되고 계층간 유동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계층의 형성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사회와 같이 분업이 다소 간단하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제한적일 경우 사회적 유동이 낮아 계층성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19세기 중국은 전통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곧 계층분화의 변화와 지식구조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다. 19세기 중국의 서학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의 변화는 중국의 사회구조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서학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공간의 변화, 서학의 주체들의 사회적 신분 혹은 계층의 변화, 서학이 전체 지식구조에서 점하는 지위의 변화는 곧 19세기 이래 중국사회의 변화와 동시에 병행될 뿐만 아니라 중국 근대성의 한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중 특히 유의할 것은 사회적 신분의 상승 혹은 유동과 관련된 서학의 사다리 기능이다. 사다리는 한 사회의 계층에 위계질서를 부여하여 특정한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정 지식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유용성이 중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공간과 그러한 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한 통로의 유무는, 새로운 지식구조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II. 서학 그룹의 관계망과 형성 시스템

19세기 중국의 서학 종사자를 보면 대부분 사회와 권력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주변적 위치에 있던, 사(士) 계층 중에서도 폭넓은 하부를 구축하고 있던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당시 사(士) 집단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던 출사의 뜻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기존의 교화(敎化)를 자임하는 유사(儒士)와 다른 즉 청대 중기이후 두드러진 전문 지식인 집단의 출신이었다. 이러한 계층성은 이들에게 당시 사회 체계나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당시 지배적인 지식시스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서학이 처음부터 일정한 계층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서학 지식인이라 명명할 수 있는 부류는 중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편재했던 것이 아니라, 바다위의 섬과 같이 특수한 지역과 특수한 관계망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심지어 서학은 처음 단순히 기능적 지식으로서, 사인이라는 전통적 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계층이 아닌 개인 혹은 소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섬들이 서로 연계되어 사회적 지식망으로 확대되어가면서 사회의 중요한 계층으로 전화해 갔다. 그런데 그들의 공간적 국지성이야 말로 서학 종사자들이 점차 계층으로 전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지성은 한편으로 서학 그룹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정한 지점에 집결하여 공동 작업을 벌여나갔고 일정한 경향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였다. 우리는 익히 알려진 양무운동시기의 지식인이었던 정관잉(鄭觀應), 왕타오(王韜), 선위구이(沈毓桂) 등의 주장 속에서 주제의 집중과 관점의 공통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적잖은 년 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공간에서 공통의 지식원에 입각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담론을 위한 인적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세기 말 이전의 중국 서학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실제 서학을 형성해 나갔던 이들 그룹의 인적망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학 관련 인적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중국 경제(經世)

혹은 양무 관료를 중심으로 한 막부(幕府) 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인이 세운 학교와 조직을 매개로한 인적 네트워크이다. 먼저 막부는 중국의 청대 후기의 대표적인 정치문화의 한 현상으로서 일부 고관들이 일반 중하층 지식인을 자신의 주위에 모아 사적 혹은 공적인 업무들을 수행토록 하는 비공식적 제도였다. 이는 광대한 통치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료들에 의해 관리되는 제국의 통치체계의 산물이었다. 즉 지방의 관료들은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자문이나 실무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을 채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제의 높은 경쟁으로 거인(舉人)이 될 향시(鄉試) 이상의 과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출사(出仕)의 뜻을 이루지 못한 지식인들이 경제적 문제의 해결, 지식계층의 참여(교류), 현실정치에의 참여 등을 위해 대관료의 후원을 받아야 했다.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는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지식인들은 후원자에 협조하여 시문이나 문헌편찬에 종사하거나 실제 염정, 해운, 치수, 방어, 구호활동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막부문화는 청 중기에는 주로 시문이나 학술활동 중심의 막료활동[유막(遊幕)]이 위주였으나 도광제(道光帝, 1821-1850) 이후는 지방사무와 중앙의 특수 정무(政務)나 양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막부활동은 더 활발해졌으며 사회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우선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등을 거치면서 재정의 확충을 위해 정식 과거제도와 기부금을 통한 신사계층의 확대에 말미암아 과거시험에 합격했어도 관직을 받지 못하는 사(士)계층이 증가하였고, 또 기부금을 통해 관직을 얻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 과거제도에 대한 선망과 흥미가 상당히 약화되었다.⁶⁾ 따라서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제도 이외의 다른 삶의 방식을 도모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 막부활동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진출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다른 한편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을 거치면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양무가 중앙정부와 연해안 주요 지방정부의 업무가 되면서, 이것을 담당할 새로운 지식인들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인재는 기존의 과거시험을 통해서 얻기 어려웠고, 지방 사무에 밝거나 전문적 지식과 안목을 지닌 일반 지식인들 가운데서 발탁해야 했다. 특히 쥘관판(曾國藩) 등의 건의에 의해 막부활동에 종사하는 인물 중 재능있는 인재를 발탁하여 적극 관직을 수여토록 했는데, 이로써 19세기 중기 이후에는 쥘관판, 리홍장(李鴻章), 장즈둥(張之洞)과 같은 핵심 관료들의 문하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운집하여 일정한 지식-인적망을 형성하였다.⁷⁾ 즉 19세기 후기 중국의 막부는 단순히 개인적 수요에 의한 인적망이 아니라 특수 정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권력 네트워크이기도 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과거를 통한 출사의 뜻을 이루지 못한 지식인은 물론, 유생(儒生)과 신사(紳士)계층과 유학생, 심지어 정식 과거시험의 진사과에서 급제를 한 관원과 외국인들까지도 망라되어 있었다.

막료 전체가 서학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는 당연히 서학과 관련된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서학에 관심을 갖도록 계획적으로 유도하기도 하였다. 서학 관련 막료들은 대부분 외교나 상업, 기계 제조, 과학 교육과 같은 특수 업무능력을 지닌 실무형 지식인들이었다. 이 가운데 무술변법(1898년) 이전 서학관련 지식인의 막부활동은 주로 아편전쟁 이전의 타오수(陶澍)와 이후 양무운동을

6) 張仲禮著, 李榮昌譯, 『中國紳士-關於其在19世紀中國社會中作用的研究』,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8, 제2장 참고.

7) 청대 막부활동에 대해서는 尙小明, 『學人遊幕與清代學術』,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李志茗, 『晚清四大幕府』, 上海人民出版社, 2002; K. E. 福爾索姆著, 劉悅斌·劉蘭芝譯, 『朋友·客人·同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쩡궈판(曾國藩), 리홍장(李鴻章) 등과 같은 주요 양무관료들의 막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막부에서 활동했던 서학관련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다.

<표1> 막부와 서학관련 지식인

막 부	서학관련 막료활동 지식인
陶 澍	魏源, 馮桂芬 등
曾國藩	李善蘭, 徐壽, 郭嵩燾, 陳蘭彬, 容閔, 華蘅芳, 薛福成, 徐建寅 등
李鴻章	馮桂芬, 郭嵩燾, 薛福成, 鄭觀應, 伍廷芳, 馬建忠, 唐廷樞, 羅豐祿 등

이상의 막부활동 지식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두 관료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서학과 관련된 지식과 담론의 생산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귀쑹타오(郭嵩燾), 쉘푸청(薛福成), 마젠중(馬建忠) 등은 청 말의 중요한 외교관이자 양무의 정책 집행자이기도 했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 사회적 실천을 상호 연계시키는 막부는 민간사회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을 사회와 국가의 지식과 연계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 다양한 개성 있는 막부의 지식인들은 서로 각기 다른 공간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혁과 관련하여 유사한 가치 정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활용하여 서학의 사회적 합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민간과 서구인 중심이 된 서학 네트워크이다. 처음 서학의 실질적 형성은 주로 서구의 선교사들 및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련의 ‘민간’ 지식인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민간 중심의 서학은 기본적으로 서구 선교사들이 주도하였지만, 점차 중국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갔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서학의 보급을 위해 힘쓰던 서구의 선교사들 역시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특정한 조직을 통해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⁸⁾ 교육의 대상인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서학지식인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초기 학교에서 수학하고 이후 중국의 서학보급이나 그와 관련한 일에 종사한 지식인, 서구인이 세우거나 참여한 조직에 함께 참여한 지식인, 그리고 다음으로 서구에 유학을 한 지식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민간의 서학이 서구 선교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인해 자연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선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초기 서학의 형성지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표2> 중국인의 서학 경로

유형	서학 지식인
서구 학교	梁發, 袁德輝, 何進善, 何啓, 胡禮垣, 伍廷芳, 唐廷樞, 容閔, 黃勝, 鄭觀應 등
서구인 조직/기구	李善蘭, 徐壽, 張福僖, 王韜, 華蘅芳, 沈毓桂, 管嗣復, 蔡爾康, 吳友如 등
서구 유학	伍廷芳, 馬建忠, 容閔, 舒高第 등

8) 19세기 중국에서 설립된 서구의 교육 및 지식 보급 기구와 활동에 대해서는 백광준, 「19세기 초 서양 근대 지식의 중국 전파-‘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91, 2017, 113-35쪽; 차태근,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담론과 지식망: ‘중국총보(Chinse repository)’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32, 2005, 119-145쪽 참조.

중국 학교/기구	鍾天緯, 李鳳苞, 趙元益, 賈步緯, 徐建寅, 羅豐祿, 嚴良勳, 汪鳳藻, 朱格仁, 瞿昂來, 鳳儀, 朱敬彝, 黃致堯, 吳宗濂, 周傳經, 徐紹甲, 席淦 등
----------	---

선교사가 중심이 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광둥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영화서원(英華書院, the anglo-chinese college, 1818-1856), 모리슨 학당(Morrison Educational Society School, 1839-1849)등 학교,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묵해서관(墨海書館, London Missionary Society Press, 1844-1863)과 격치서원(格致書院)을 들 수 있다. 이 중 영화학원과 모리슨 학당은 아편전쟁을 전후한 기간에 중국의 주변에서 영국 기독교 선교사 모리슨과 밀른 등이 중심이 되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다. 영화학원은 1818년 말라카에서 건립되었다가 아편전쟁 이후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면서 홍콩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1844년 영화신학원(英華神學院)으로 개칭하여 1856년까지 운영되었다. 모리슨 학당은 미국 선교사 브리쥬맨(裨治文: E. C. Bridgman)과 모리슨의 아들 존 모리슨(J. R. Morrison) 등이 세운 모리슨 교육협회에서 1839년에 마카오에서 설립하였다가, 아편전쟁 이후 1842년 홍콩으로 이전하여 1849년까지 운영하였다. 이와 달리 묵해서관은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 메드허스트(麥都思: Walter Henry Medhurst), 와일리(偉烈亞力: Alexander Wylie), 무어헤드(慕維廉: William Muirhead), 에드킨스(艾約瑟: Joseph Edkins) 등이 자카르타에서 인쇄기를 들여와 1843년 상하이에 설립한 출판기구이다. 묵해서관은 성경과 선교 자료 등 기독교 관련 서적이외에도 서구의 수학, 과학 관련 번역 서적과 잡지 『육합총담(六合叢談, Shanghai Serial)』을 발간하였다. 이 출판기구에서 주목할 것은, 앞의 교육기관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및 기초지식을 쌓는데 중점을 둔 것에 비해, 묵해서관은 처음부터 중문 번역과 출판 활동을 위해 리산란(李善蘭), 왕타오(王韜) 등 중국 지식인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학과 중학을 접목시키고 서학에 대한 중국 사회의 승인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일 전쟁 이전 민간 주도의 서학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하이에 설립된 격치서원(格致書院, 1873-1914)이다. 격치서원은 양무운동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나 설립된 만큼 서구 선교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 지식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조직하였으며 양무관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활동 방면에서도 교육과 출판, 박물관과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주목할 것은 격치서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은 광둥 등 국가의 주변이 아니라 저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문화의 중심지역 출신이자 부시(府試), 현시(縣試) 등을 합격한 감생이나 심지어 거인출신들도 있었다는 점이다.⁹⁾

이상이 선교사들이 주로 중국인에 대한 선교의 목적 하에 영어교육과 서구의 학술보급을 위해 조직한 학교와 기구였다면, 중국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서학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방의 기구가 출현한 것은 1860년 이후였다. 홍콩에서는 모리슨 학당이 폐교된 이후 10년 사이에 홍콩에는 십여 개의 국립학교가 건립되었지만, 1862년에는 그 중 몇 개의 학교를 통합하여 중앙서원(中央書院, The Government Central School)을 건립하여 더욱 체계적인 중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 주도의 서학교육은 특히 양무운동의 일환으로서 양무를 담당할 인재 양성이 시급했던 중국 내지에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양무운동은 이신(奕訢, Yi Xin), 쩡귀판 등이 중심이 되어 서구의 과학과 군사기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재 및 외교상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중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추진되었다. 첫째는 1858년 텐진조약으로 베이징에 외국의 공사가

9)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80 참고.

상주하는 등 서구와의 외교관계가 상시화 되면서 이를 담당할 외교관의 양성이 필요했다. 이들은 주로 외국어와 만국공법을 학습하고 외국에 유학생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서구적인 기계생산을 도입한 산업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서구의 근대적인 군사무기와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서구의 기초과학과 무기제조 및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지자 양무 관료들을 중심으로 일련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먼저 외교부에 해당하는 총리사무아문(總理事務衙門)의 산하에 1862년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을 세워 선교사 존 쇼 버든(John Shaw Burdon)이 초대 총교시를 맡았으며, 존 프라이어(John Fryer),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과 리산란, 쉬서우(徐壽) 등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서구의 선교사와 중국의 저명한 수학자, 화학자들이 교사를 맡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서구의 각 국 언어와 천문학, 수학 등 과학지식들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뿐만 아니라 1863년과 1864년에 각각 상하이(1867년 상하이광방언관(上海廣方言館)으로 개칭)와 광저우(廣州)에 동문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들 교육기관은 서구의 기초 과학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주요 목적은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양성이었다. 또 서구의 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도 출현하였는데, 1866년 쥘쑹탕(左宗棠, 1812-1885)이 설립한 푸젠선정학당(福建船政學堂), 1881년에 이홍장이 건립한 텐진수사학당(天津水師學堂)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중학과 서학을 겸하고 교사도 서구인과 중국인이 함께 담당하면서 중국의 교육 및 지식체계 속에 서학의 지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서학 지식인들에게 사회적 활동공간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Ⅲ. 서학의 사회적 공간: 상인·통역사에서 변호사·의사로

서학이 지식으로서 의미를 갖게 위해서는 지식체계에서 일정한 위치가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본 서학의 생산 주체의 변화, 즉 선교사 중심에서 선교사 및 중국지식인의 협력, 그리고 관방주도로의 변화는 바로 서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에 서학이 소개되고 중국인의 교육내용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820년대 이후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특히 19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 선교 사업회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연이어 파견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선교와 지식보급을 목적으로 학교를 수립하였는데, 선교사 모리슨(Dr. Robert Morrison)과 밀른(Rev. William Milne)이 말라카에 건립한 영화서원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서구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원은 말라카 등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영어와 기독교 원리를 가르치고 동시에 선교사들에게 중국어와 중국어 텍스트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중국어, 영어와 같은 언어교육과 더불어 지리학, 천문학, 수학, 과학과 같은 서구 근대 학문, 그리고 성경과 종교에 관한 것이었다.

1820년에 학생 모집을 시작한 영화서원은 처음 학생, 특히 중국인 학생을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그 곳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교육을 통해 기존의 생업 이상을 넘어 다른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얻는데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정작 외국어나 초보수준의 중국문학을 익혀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개교 이후 14년 후인 1834년까지 졸업한 중국학생 40명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세관원이나 통역으로 활동한 4명과 나중에 목사가 된 량파(梁發, 1795-1855)와 허진산(何進善, 1817-1870)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인이나 선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중국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은 자는 베이징

의 사이관(四夷館) 통사가 되었다가 아편전쟁 직전인 1839년 린쩌쉬(林則徐)의 아편금연 운동 기간에 통번역원으로 활동했던 위안더후이(袁德輝) 한 사람 뿐이었다.¹⁰⁾ 즉 당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와 서구에 대한 지식이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상업이나 통역에 불과했던 것이다.¹¹⁾ 뿐만 아니라 통역관은 당시 중국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낮은 신분이었다. 이러한 서학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의 한계는 단순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의 서구의 근대지식에 머문 교육과정과 직접 교육을 담당했던 선교사들의 비전문성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40년 아편전쟁 이후 홍콩이나 마카오, 광저우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선교사와 상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의 중국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선교사들의 추천과 지원을 받아 직접 해외 유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정식으로 대학교육을 받는 등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귀국해서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839년 마카오에 설립한 모리슨 학교는 미국의 예일대학 출신인 사무엘 로빈슨 브라운(Rev. Samuel Robbins Brown)을 초빙하였는데, 그는 1846년 귀국하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국인 학생 룡흥(容閔, 1828-1912), 황성(黃勝), 황관(黃寬, 1829-1878) 등 3명이 외국인의 경제적 지원 하에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였다. 그 중 황성은 병으로 곧 다시 귀국하였지만,¹²⁾ 룡흥과 황관은 미국에서 몬슨 아카데미(Monson Academy)를 졸업한 후 각각 미국 예일대학과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룡흥은 1854년 문학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고, 황관은 1857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당시 서구의 최고 학문을 익히고 온 이들이 중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먼저 룡흥을 보면 귀국 후 그가 자리 잡은 것은 미국 주중 공사인 피터 파커(Peter Parker, 1804-1888)의 서기와 홍콩 최고법원의 통역사의 직책이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그의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비서와 통역사와 같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황관은 1858년 광저우에서 홉슨(B. Hobson)과 혜애의관(惠愛醫館)을 열고 의료 활동을 하였으며, 1866년에는 광저우의 의료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박제의원(博濟醫院)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또 1862년에는 리홍장(李鴻章)의 초빙을 받아 막료 의사[醫官]로 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서구 의학이 중국에서도 인정을

10) 조훈, 『일리암 밀른』, 그리심, 2008, 222-239쪽. 당시 아편금연 운동기간에 린쩌쉬를 보조했던 중국인 통번역관은 4명이 있었는데, 위안더후이 이외에 인도 세람포르(Serampore) 출신으로 중국인 아버지와 벵갈 출신 어머니에서 태어나 선교학교에서 교육받았던 아만(Aman)과,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 주의 콘웰(Cornwall)에 소재한 선교학교에서 수학했던 알룸(Alum), 그리고 광둥에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운 량파의 아들 량진더(梁進德)였다. 위안더후이는 광둥의 13양행 가운데 하나인 이화양행(怡和洋行)의 사장 우빙젠(伍秉鑑)의 추천을 통해 정식 통역관이 되었고, 나머지는 린쩌쉬가 칙사로 부임하여 해외 자료 수집·번역과 문서왕래의 필요성에 의해 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Carl T. Smith, *Chinese Christians: Elites, Middlemen, and the Church i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pp. 54-59.

11) 즉 외국어 및 외국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상업상 필요한 통역이었다. 물론 통역 역시 사회적으로, 특히 광둥과 같이 무역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서구학교 출신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무역상품이던 아편의 거래를 위한 통역관으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중국 사회에서 통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수립한 서구 선교사들조차 자신들의 교육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중국인에게 외국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도 하였다. Charles Taylor, *Five Years in China: With Some Account of the Great Rebellion, and a Description of St. Helena*, New York: Derby & Jackson, 1860, p. 50.

12) 황성은 귀국 후에 홍콩의 신문사에서 인쇄술을 배우고 신문출판에 종사하였다. 1873년에는 룡흥이 기획한 미국 유학생 2차 파견단의 수행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후 미국 초대 공사관에서 통역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 의사는 능력에 따라 개방된 직업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당시 외국에서 서구의 고등 학문을 익혀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기존 중국사회에서의 비경쟁 분야인 의학이나 변호사, 통역과 같은 비교적 개인적 활동이 자유로운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는 개인적으로 서구 유학을 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말 저명한 사상가 허치(何啟, 1858-1914)는 홍콩에서 중앙서원을 졸업한 후 1872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애버딘(Aberdeen)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으며, 다시 링컨 법학원(Lincoln's Inn)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882년에 귀국하였다. 또 청말 민초 외교관으로 활동한 우팅팡(伍廷芳, 1842-1922)은 홍콩 성바오로서원을 졸업하고 홍콩 지방법원의 통번역관으로 근무하다가 1874년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과 링컨 법학원에서 각각 법학과 변호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다. 졸업 후에는 1877년 귀국하여 변호사로 일하다가 1882년에는 이홍장의 막부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쑨원(孫文, 1866-1925) 역시 하와이와 홍콩의 중앙서원에서 수학을 한 후 1887년부터 1892년에 허치가 세운 서의서원(西醫書院)에서 의학을 배우고 의사가 되었다. 특히 많지는 않지만 선교사나 목사인 부친의 지원을 받아 서구에 유학하였던 중국 여성들 대부분은 의학을 전공하였는데, 이는 여성이라는 성별이외도 귀국 후 서구지식이 중국에서 가장 잘 통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의학이었기 때문이었다.¹³⁾ 이러한 제한적인 출로로 인해 중국인들 가운데 서학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으며, 그것도 기독교를 통해 서구문명을 잘 이해하고 있던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

이렇게 협소한 활동영역으로 인해 사람들이 서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 좁은 사회적 활동공간은 서학을 매개로 한 인적인 네트워크도 매우 협소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영화학원 출신으로 목사가 된 허진산은 7남6녀의 자녀가 있었다. 그 중 다섯째 아들이 바로 허치였다. 즉 허치의 자비유학은 바로 그의 부친의 영화학원에서의 교육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허진산의 딸 중 한 명은 앞서 언급한 황관과 결혼을 하였으며, 또 한 명의 딸은 역시 외교관인 우팅팡과 결혼하였다. 서학을 매개로 형성되는 이와 같이 밀접한 인척관계는 당시 중국에서 서학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으며, 허치와 우팅팡, 쑨원이 여전히 의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것도 중국은 물론 홍콩에서도 서학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변호사와 서구의 근대적 의학에 기초를 둔 의사의 직업은 서학이 사회적인 역할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IV. 서학의 사다리: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국인 중 최초의 예일대학 졸업생인 룽훙이 문학을 전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13) 19세기 중국의 여성 중 미국에 유학한 사람은 진야메이(金雅妹, 1864-1934), 허진잉(何金英, 허진홍(許金龔)으로 표기하기도 함, 1865-1929), 캉아이더(康愛德, 1873-1931), 스메이위(石美玉, 1873-1954) 등이 있다. 이들은 부친인 목사나 외국 선교사의 지지를 받아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의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의사로서 활동을 하였다. 진야메이는 1882년 미국 뉴욕대학 부속 여자의과대학에서 수학하고 1888년 졸업 후 귀국하였으며, 허진잉은 1884년 일리노이의 웨슬리 대학(Wesleyan College)에서 수학한 후 1894년에 다시 필라델피아 종합의대에서 실습을 마치고 1895년에 귀국하였다. 캉아이더와 스메이위는 미국 여성 선교사 호에(Howe)의 도움으로 1892년에 함께 미시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1896년 귀국하였다. 褚季能, 「甲午戰前四位女留學生」, 『東方雜誌』, 第3卷第11號, 1934. 6.

할 수 있다. 귀국 후 그가 외국인과 관련된 곳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중국내에서 활동할 공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룡홍은 자신의 서학지식을 가지고 중국 국가나 사회에서 참여할 길을 모색하며 1859년에는 태평천국에 미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모두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런 그에게 중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1863년 가을 리산란의 추천으로 쩡귀판을 만나면서부터이다. 그는 쩡귀판의 막부에서 서구로부터 기기의 도입과 번역 등에 종사하며 4품관의 지위에 올랐으며,¹⁴⁾ 후에 중국 최초로 미국에 중국학생들을 파견하여 유학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리산란을 통해 쩡귀판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태평천국의 난과 제2차 아편전쟁을 거쳐 1861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양무운동(洋務運動)이라는 역사적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무운동으로 서학교육을 위한 여러 학교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중국사회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학을 통해 중국사회에서 일정한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사동문관은 주로 통역관과 서양관련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양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다지 높지 못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정통적인 과거시험을 통한 길(이를 정도(正途)라고 부름)을 선택하였다. 이에 양무운동을 주도하던 이신과 쩡귀판, 줘종탕 등 지방 독무(督撫)들은 양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하는 인물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적 신분을 연계시켰다. 즉 경사동문관에서 시험을 거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로 과거시험의 가장 낮은 단계인 동시(童試) 합격생에게 부여하던 감생(監生), 공생(貢生)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향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정을 마친 우수한 사람들에게 8품 내지 9품의 직위와 낭중(郎中), 주사(主事), 지현(知縣), 지부(知府) 등의 직함을 부여하고 외교관, 통역관 등에 임용하였다. 또 상하이와 광저우의 동문관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경사동문관에 추천하여 일정한 과정과 시험을 거쳐 사회적 공명(功名)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870년대 이후에는 서학 교육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유학생 파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872년 룡홍의 제안으로 어린 학생들을 선발하여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유학을 하도록 미국에 파견한 이른바 유동출양(幼童出洋)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1872년부터 1875년까지 매년 4차례에 걸쳐 각각 30명씩 전체 120명을 파견하였다. 이 계획은 비록 중국내 완고파의 방해와 미국에서의 반중국 정서로 인하여 1881년에 유학생들을 중도에 귀국시켜 중단되었지만 중국에서 서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동문관이나 선정학당, 수사학당에서의 서학교육은 초보적이거나 단편적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유학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문관과 푸젠선정학당에서도 학생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푸젠선정학당에서는 1877년, 1883년, 1886년, 1897년 총 4회에 걸쳐 85명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파견하였다. 또 경사동문관에서도 1902년 경사대학당에 합병되기 전까지 전체 2회에 걸쳐 32명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파견하였다. 유학을 마친 사람들은 앞서 경사동문관의 졸업생들처럼 일정한 지위와 직함을 받았다. 예를 들어 룡홍의 계획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던 120명 가운데 1881년 중도에 귀국할 때 이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어우양경(歐陽

14) 4품관은 당시 높은 관직이었다. 일반적으로 과거시험 진사과에 합격하면 종6품에서 정8품까지 수여되었는데, 4품관은 그 이상이었던 것이다. 룡홍에게 4품관을 부여한 것은, 당시 서구 선교사들이 서구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중국에서 진사과에 합격한 것과 동일시했던 것과 서학에 정통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서학을 폄하하는 사회적 풍토 하에서 룡홍 등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품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賡, 1858-1941), 잔텐여우(詹天佑, 1861-1919) 두 명뿐이었는데, 이들은 귀국 후 푸젠선정학당에서 몇 년 수학을 한 후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5품관을 수여받았으며 나머지도 대부분은 9품관에 상응하는 지위를 수여 받았다.

이와 같이 양무운동으로 서학은 중국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계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여전히 유가경전을 중심으로 한 과거시험이라는 정도(正途)에서 보면 지엽적인 통로로 간주되었다. 이 때문에 이신은 경사동문관에 천문학과 수학을 위한 과정을 설치하면서 거인(舉人)이나 감생, 공생출신이외에도 30세 이하의 젊은 진사출신들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대학사 워런(倭仁)과 어사 장성짜오(張盛藻) 등은 정도출신이 서구의 교사들로부터 천문학이나 수학을 배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도가 아닌 말단에 빠지게 하고 서구에 비해 중국을 낮추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반대하였다.¹⁵⁾ 이에 대해 동치제가 이신 등의 주장을 지지하였지만, 실제로 정도출신이 천문학이나 수학을 배우겠다고 나선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또 동문관이나 선정학당, 혹은 미국 유학생이든 서학을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자력으로 정도의 길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다. 동문관이나 선정학당 등에서 학생들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보조했던 것도 바로 당시 학생모집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서학에 능한 사람에게 정도(正途)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산학(算學)을 1888년부터 향시의 정규 과거시험 과목에 추가하였지만 실제 응시생은 매우 적었으며, 1898년 무술변법시기에 결정했다가 1903년에 비로소 실시된 외교, 내정, 기술 등 현실적인 실무에 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제특과(經濟特科) 역시 실제적인 효과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1900년 이전 서학이 중국인의 사회진출을 위해 놓았던 사다리는 여전히 사회 인식상 주변부이자 제한된 단계에 국한되어 있었다. 상하이동문관을 거쳐 경사동문관을 졸업한 왕펑짜오(汪鳳藻, 1851-1918)가 2품관에 올라 주일본공사를 맡기도 했지만 이는 그가 1883년에 과거시험을 통해 진사에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동문관 출신가운데 그와 같이 과거시험을 통해 거인이나 진사가 된 사람은 13명에 달한다. 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5품관 이하의 직위로 외교관 수행원이나 통역관, 선박기술과 항해, 기기제조의 기술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하급관리로 충당되었다.

그럼에도 경사동문관이나 선정학당, 수사학당이 중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 출신들이 1905년 과거제의 폐지로 본격적인 학당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서학관련 지식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때 바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1872년 룡흥이 기획한 미국유학에 참여했던 어린 학생들은 30여년이 지난 1900년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교육, 과기, 군사, 광산, 철로, 전보, 우정 및 해군 등의 분야에서 중견인물로 성장하였다. 그 가운데 잔텐여우는 중국 철도의 개척자로 명성을 얻었고, 탕샤오이(唐紹儀)는 중화민국 초임 내각총리를, 탕귀안(唐國安)은 청화대학의 전신인 청화학교의 초임 교장을, 차이팅간(蔡廷幹)은 해군 원수(元帥)를, 그리고 차이샤오지(蔡紹基)는 북양대학 교장을 맡았다. 1905년 과거제가 폐지되고, 특히 1912년 이후 민국시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사회적 진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사다리는 이제 서학이 대신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룡흥이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간 중국의 주변 경계에서 떠돌고 있었던 반면에 1917년 콜롬비아 대학원을 갓 졸업한 후스(胡適)가 곧 바로 베이징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던 것은 반여 세기 동안 중국에서 서학의 변화한 위상을 잘 말해 준다.

V. 새로운 지식장과 권력의 형성

15) 寶璽等修, 『籌辦夷務始末』(同治朝), 第48卷, 北平故宮博物院影印, 1930, 10-14쪽.

1842년 7월 30일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3세 때에 부모를 따라 광저우로 돌아온 우팅팡이 선택한 것은 과거시험 준비였다. 그러나 그는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하자, 1856년 홍콩에서 신문을 발간하던 친척 천옌(陳言)¹⁶⁾의 도움으로 홍콩으로 가 성바오서원에서 수학을 하였다. 졸업 후에는 홍콩 고등재판소의 통역관을 하면서 천옌을 도와 『중외일보』 및 『화자일보』를 위한 번역작업을 하였다. 그 후 1874년 영국 런던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876년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중국인 최초의 변호사가 되었다. 1877년 귀국하기 전, 룡흥이 기획한 미국유학생을 이끌고 미국에 가 있던 광둥 출신 천란빈(陳蘭彬)의 요청으로 주미영사를 수락하고, 또 마침 중국공사로 런던에 온 귀쑹타오(郭崇燾)를 만나 외국어와 법률에 능통한 인재와 신문잡지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¹⁷⁾ 하지만 부친의 사망으로 홍콩으로 귀국하여 텐진 해관도(海關道) 리베이탕(黎北棠)의 소개로 북양대신이자 즈루(直隸) 총독인 리홍장을 만났다.¹⁸⁾ 그 후 1880년 홍콩 입법국위원이 되었지만 1882년 리홍장의 막부로 들어가 외교와 법률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1887년 청 조정으로부터 2품관을 하사받았다. 청말 민초 중국의 저명한 외교관 우팅팡의 19세기 후반 30년간의 행보는 당시 서학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말라카, 마카오, 홍콩 등 중국의 외부와 경계에서 시작된 서학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이제 홍콩과 광둥, 상하이, 텐진 및 베이징 등 내지로 서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활동지역도 중국과 외국을 넘나들면서 외교와 사업,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학에 관계하던 지식인들은 지역과 인맥 등을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양무관료들의 지지 하에 서로 연계된 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중국에서 서학보급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다양하기는 했지만 또 서로 인적으로 중첩되고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 다양한 조직을 교차시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심인물 간의 인적 연계는 훨씬 더 긴밀하였으며, 또 사상이나 의식적 측면에서의 유대 또한 매우 강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학을 주도하고 있던 그룹은 크게 외국 선교사 그룹, 초기 교회학교 및 기구관련 중국 지식인 그룹, 그리고 이들에 의해 양성된 중국 학교 졸업생 그룹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그룹은 전자의 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보조적이거나 20세기 초에 주로 활약했기 때문에 19세기 중심적인 서학 지식인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19세기 중심적인 서학그룹은 자연히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광둥그룹과 상하이 묵해서관 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묵해서관은 1843년 런던 선교회의 선교사 메드허스트가 상하이에 설립하였으며, 바타비아(현재 자카르타)에서 선교용으로 쓰던 인쇄기를 옮겨와 1844년부터 1860년까지 대략 170여종의 서적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구체적 활동보다도 그 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 선교사와 중국 지식인의 인적망이다. 우선 서구 선교사를 보면 메드허스트 외

16) 홍콩에서 언론에 종사하면서 1871년 3월 홍콩데일리프레스(Hong Kong Daily Press, 『혈자보(子刺報)』)의 부주필을 맡았으며, 곧 그 신문의 중문판인 『중외신문(中外新聞)』(1872년 『화자일보(華字日報)』 개칭)을 발간하였다. 그는 우팅팡, 허치와 친척관계로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며, 또 태평천국의 가담 혐의로 수배를 받아 홍콩으로 피신해 왔던 왕타오와도 관계가 밀접했다. 1878년에는 쿠바 영사를 지내고 1905년 사망할 때 까지 광산과 철도 등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17) 귀쑹타오는 우팅팡과 만났을 때 그가 이미 미국영사를 수락했음을 알았지만, 청정부에 보고하여 더 중요한 영국의 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8) 천옌이 1878년 천란빈의 요청으로 쿠바 영사로 부임하였는데, 이는 우팅팡이 부친상으로 미국영사로 부임하지 못하자 그 대신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쿠바영사는 미국 영사가 겸하고 있었는데, 쿠바에서 화교에 대한 탄압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에 영사를 파견하였다.

에도 스트로나흐(施敦力約翰: John Stronach), 에드킨스, 무어헤드와 와일리, 그리고 알렌과 윌리엄 찰스 밀린 등이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이후 중국에서 서구학문을 보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앞서 열거한 조직들 외에도 아시아 왕립협회, 재중선교사협회 등의 모임과 『육합총담』, 『만국공보』 등의 잡지, 그리고 광학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긴밀한 인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⁹⁾ 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국의 관원 및 지식인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번역, 출판 등 활동에 있어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프라이어, 리차드(李提摩太, Timothy Richard), 레이드(李佳白, Gilbert Reid), 마틴 등과 더불어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 중 학문적 차원에서 가장 학식이 깊던 인물들이었으며, 중국문화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무시가 아니라 일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룹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의 민간 서학 그룹이나 관료 그룹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번역이나 저서, 또는 시론(時論)적 글쓰기를 통해 19세기 중국 서학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묵해서관은 초기에 서학관련 중국 지식인들의 인적망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왕타오의 일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묵해서관의 번역활동이나 출판활동에 선후로 참여했던 주요 인물로는 왕타오를 비롯하여 리산란(李善蘭), 장둔푸(蔣敦復), 쉬서우(徐壽), 화형팡(華蘅芳), 관쓰푸(管嗣復), 장푸시(張福僊), 천위구이(沈毓桂)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음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두 저장과 장쑤성 출신으로 동향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묵해서관 시기 대략 10여 년 동안 막역지교로서 각각 에드킨스, 무어헤드 및 와일리 등과 번역활동을 하는 한편 시문과 시사관련 토론 등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²⁰⁾ 그러나 이 그룹의 중요성은 묵해서관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이후 중국의 서학의 주요기관의 설립과 교육에 참여하여 서학보급을 이끌었다는 점에 있다.

리산란은 19세기 중국 최고의 수학자로서 이후 쟁귀판의 요청으로 쉬서우, 화형팡 등과 함께 안칭(安慶)의 군무기소(軍械所)에서 활동하였고, 1868년에는 귀쑹타오의 추천으로 경사동문관에서 천문과 수학을 맡아 연구 활동 및 교육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배출된 인재들은 이후 강남제조국의 번역관 및 외교, 상업방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쉬서우는 강남제조국의 번역관과 더불어 격치서원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 경영 및 교육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리산란, 쉬서우, 화형팡 등은 수학, 화학 등 과학방면에서 당시 중국의 일부 학자들과 함께 과학자 그룹을 형성하였다.²¹⁾

한편 1860년대 사망한 장둔푸, 관쓰푸, 장푸시를 제외한 왕타오와 선위구이는 과학계가 아닌 언론계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이 중 선위구이는 1849년 묵해서원에서 왕타오와 만난 이후 다시 곧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859년 다시 묵해서원의 번역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후 상하이에서 『신보(申報)』 편집을 잠시 맡기도 했지만, 주로 알렌을 도와 『교회신보(教會新報)』, 『만국공보』의 편집에 종사했으며, 1882년에는 역시 알렌과 더불어 중서서원(中西書院)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1889년에는 다시 광학회의 기간지로 복간된 『만국공보』의 편집장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선위구이는 청말 대표적인 양무 실업가인 성취안화이(盛宣懷) 등과 가까운 관계를

19) 이에 대해서는 차태근, 「19세기 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中國現代文學』, 제33호, 2005, 1-25쪽 참고.

20) 이들 관계에 대해서는 王韜, 『攷園老民自傳』, 江蘇人民出版社, 1999. 33-122쪽 참고.

21) 당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학자들 가운데, 수학자 구관광(顧觀光, 1799-1862), 장원후(張文虎, 1808-1885), 다이자오(戴照, 1808-1860), 뤼스린(羅士琳, 1789-1853), 쉬유런(徐有壬, 1800~1860) 등의 수학자, 쉬젠인(徐建寅, 1845-1901, 쉬서우의 아들), 쉬상우(徐尙武, 1872-1958, 쉬젠인의 아들) 등 화학자, 그리고 지리학에 밝았던 리펑바오(李鳳苞, 1834-1887)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王渝生, 『中國近代科學的先驅』, 科學出版社, 2000; 汪廣仁·徐振亞, 『海國擲珠의徐壽父子』, 科學出版社, 2000 참고.

맏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언론·출판 등을 통해 신지식 보급을 이끌었던 일련의 주요 언론인들 그룹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²²⁾ 특히 이 그룹은 출사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었지만 주요활동은 당시 관계(官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신보』, 『자림서보(字林西報)』, 『호보(滬報)』(『자림서보』 중문판), 『신문보(新聞報)』등을 통해 근대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청말 리차드, 알렌 등과 더불어 서구 정치사상에 대한 번역 소개와 개혁적 정론과 시론을 발표하여 서학담론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등 독특한 성격을 지닌 서학 그룹이었다.

<표3> 서학의 상하이(목해서관) 그룹

이름	출생지	이후 주요 활동	비고
李善蘭 (1811-1882)	저장 하이닝(海寧)	1952년 목해서관, 1862년 쟁귀판 막료, 1868년 경사 동문관의 천문, 수학의 교수	수재출신, 수학, 과학에 능통함
張福儔 (?-1862)	저장 귀이안(歸安)	리산란의 소개로 1853년 목해서관 입관, 1859년 동향 수학자이나 장쭈 순무(巡撫) 쉬유런(徐有壬)의 막료	수재 출신, 물리학에 능함
徐 壽 (1818-1884)	장쭈 우시(無錫)	1852년 목해서관, 1862 쟁귀판 막료, 1868년 강남제조국 번역관, 1874 격치서원 이사	화학 등 과학에 능함
華蘅芳 (1833-1902)	장쭈 우시(無錫)	1852년 목해서관, 1862년 쟁귀판 막료, 1868년 강남제조국 번역관, 1876년 격치서원 교수, 1887년 텐진무비학당(武備學堂) 교수, 1892년 우창(武昌) 양호서원(兩湖書院) 및 자강학당(自強學堂) 교수 등	수학과 제조기술에 능함
蔣敦復 (1808-1867)	상하이	1853년 왕탕오의 추천으로 목해서관 입관, 1864년 덩르창(丁日昌)의 막료	제생(諸生)출신, 『대영국지(大英國志)』, 『위싱턴전(華盛頓傳)』등 번역
管嗣復 (?-1860)	장쭈 장닝(江寧)	桐城派의 대표작가 관동(管同)의 아들, 1854년 에드킨스의 소개로 목해서관 입관, 서양의학 서적 번역	수재출신, 『서의약론(西醫略論)』, 『부영신설(婦嬰新說)』, 『내과신설(內科新說)』등 번역
沈毓桂 (1807-1907)	장쭈 우장(吳江)	1949년과 1859년 두 차례 목해서관 입관, 알렌과 협력하여 『만국공보』 편집과 1882년 중서서원 교수를 역임	부공생(附貢生) 출신, 번역과 언론인
王韜 (1828-1897)	장쭈 우장(吳江)	1949년 목해서관, 1862년 홍콩, 1867년 영국 방문, 1874년 『순환일보(循環日報)』창간, 1886년 격치서원 원장(山長)	수재 출신, 번역과 언론인

19세기 중국 서학의 인적망은 이들 목해서관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그룹과 더불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저우-홍콩-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광둥서학 그룹이다.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코헨이 일찍이 지적했듯이²³⁾ 상하이 그룹과는 서로 공

22) 대표적 인물로는 왕타오 외에도 목해서관 이후 선교사가 세운 최대 출판기구였던 미화서관(美華書館)의 중국어 편집자였던 뤼징탕(羅景堂), 선후로 『신보』의 편집을 맡은 장즈샹(蔣芷湘), 허구이성(何桂笙), 첸신보(錢昕伯), 황스취안(黃式權), 상하이에서 신문발행에 종사하다 이후 『만국공보』 편집에 참여한 주펑자(朱逢甲), 차이얼강(蔡爾康), 런팅쉬(任廷旭), 그리고 탕팅수(唐廷樞)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易惠莉, 『西學東漸與中國傳統知識分子-沈毓桂個案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93; 章暉·馬軍, 「遊離在儒耶之間的蔡爾康」, 『檔案與史學』, 第5期, 1998; 田中初, 「遊歷於中西之間的晚清報人蔡爾康」, 『新聞大學』, 2003年(冬) 참고.

23) Paul A. Cohe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통성을 지니면서도 그 서학의 경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상하이 그룹이 주로 직접 서구인이 운영하는 기구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서구학문을 접촉하였고, 중국문화에 대한 일정한 조예가 있는 반면 외국어는 거의 구사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광둥그룹은 초기 교회학교나 홍콩의 외국인 학교에서 수학하고 또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하여 처음부터 서구학문의 소양을 쌓았다. 하지만 그들은 상하이그룹에 비해 중국문화에 대한 기초는 약한 편이었다.

광둥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앞서 말한 영화서원(이후의 중앙서원 포함)과 모리슨 학당 출신인 위안더후이, 허진산과 허치, 후리위안 및 룡홍, 황성, 탕팅수 등과 홍콩 성바오로서원에서 수학한 우팅팡 등이다. 이들은 출신지가 대부분 해외 혹은 광둥이었으며 학맥과 지역적인 인맥을 통해 사상과 학문에 있어서 유사한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활동과정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표4> 서학의 광둥그룹

이름	출신지	주요 활동	비고
容閼 (1828 ~ 1912)	광둥 상산(香山)	1841년 모리슨 학당 수학, 1847년 도미, 1854년 예일 대학 졸업, 1864년 쩡귀판 막료, 중국 아동 미국 유학단 기획.	기독교인
何啟 (1859 ~ 1914)	광둥 난하이(南海)	중앙서원을 졸업 후 영국에 유학 법률과 의학을 전공, 1882년 홍콩으로 귀국하여 서의서원(西醫書院) 설립 및 교육담당, 홍콩 입법국 의원.	기독교인
胡禮垣 (1847 ~ 1916)	광둥 산수이(三水)	우팅팡으로부터 영어 수학, 중앙서원 졸업 및 교사, 왕타오를 도와 『순환일보』를 위해 영어번역, 1880년대 후반 정관잉이 주관하던 상하이전보분국(上海電報分局)의 통역사.	기독교인
唐廷樞 (1832 ~ 1892)	광둥 상산(香山)	1848년 모리슨 학당을 졸업, 영국 이화양행(怡和洋行)의 매판(買辦), 1873년 리홍장 막료, 운선초상국(輪船招商局) 총판(總辦), 1877년 카이핑광무국(開平礦務局)의 독판(督辦), 1874년 룡홍과 『회보(匯報)』창간, 1874년 격치서원 이사. 중서서원(中西書院) 설립에 찬조.	기독교인
伍廷芳 (1842 ~ 1922)	싱가포르(광저우에서 성장)	성바오로서원 수학, 1860년과 1874년 각각 『중외신보』, 『순환일보』 창간에 참여, 1874년 영국 유학, 법률전공, 1882년 리홍장 막료, 외교관, 중국철도회사 감독 등으로 활동.	기독교인
鄭觀應 (1842-1921)	광둥 상산(香山)	1858년 상하이에서 학업과 상업에 종사, 1867년 탕팅수와 공정운선공사(公正輪船公司)에 투자, 1868년 프라이어(John Fryer)가 운영하던 영화학교에서 수학. 1882년 리홍장의 요청으로 운선초상국(輪船招商局)에 참여. 1880년 『이언(易言)』 출판, 1894년 『성세위언(盛世危言)』 출판.	

광둥그룹 출신들 가운데 룡홍, 탕팅수, 우팅팡 등과 같이 직접 상하이그룹이나 양무관료들과 협력하여 개혁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주요 활동은 번역이 아니라 저술과 교육, 그리고 상업관련 활동이었다. 이는 서학의 경로와 전통적 학문의 소양 등에 있어 이들과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광둥의 상산 출신인 정관잉의 경우도 유사한데, 이는 이들이 모종의 측면에서 상하이 그룹과 다른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중에서 정관잉은

지역적으로는 광둥그룹이기는 하지만, 상하이와 홍콩 등을 오가며 상업 활동과 사회 활동, 그리고 저술 활동을 병행하면서 광둥그룹의 지적-사상적 특징을 이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그룹과 광둥그룹의 인적-지식의 연계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⁴⁾

한편 상하이 그룹이면서도 정관잉과 함께 상하이-광둥 두 그룹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시키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바로 왕타오이다. 왕타오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찍이 묵해서관에 들어가 번역활동을 하며 상하이그룹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는 상하이에서 단순히 번역활동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묵해서관에서 발행하던 『육합총담』의 편집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청조의 수배를 피해 홍콩으로 도피한 후 근 20여 년 동안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홍콩에서의 그의 활동은 제임스 레게를 도와 중국 유가경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 외에 주로 언론과 관련된 활동이었다. 그는 1872년 경 장쑹량(張宗良)과 천옌(陳言)이 발간한 『화자일보(華字日報)』의 주필을 맡았다가, 1874년 황성과 우팅팡의 도움을 받아 런던선교회의 인쇄기를 구입, “중화인무총국(中華印務總局)”을 설립하여 『순환일보(循環日報)』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천옌, 허치와 왕타오 사위이자 이후 『신보(申報)』의 주편을 맡은 첸징(錢徵, 즉 첸신보(錢昕伯)) 등이 참여하였고, 또 후리위안은 영문기사의 주요 번역자였다. 뿐만 아니라 왕타오는 홍콩에 기거하는 동안 귀쑹타오, 마젠중, 덩르창(丁日昌), 성취안화이 등 양무관료 그룹들과 교유하거나 서신왕래를 하였으며, 또 1879년 일본 방문 시에는 황쑤쑤(黃遵憲)를 만나 교유하였다. 1884년 도피생활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주해서는 1886년부터 쉬서우를 이어 격치서원의 산장을 맡아 정관잉과도 빈번한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묵해서관의 지우인 선위구이가 편집을 맡고 있던 『만국공보』와 사위 첸징이 편집을 맡고 있던 『신보』의 주요 기고자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관잉과 왕타오는 상하이그룹과 광둥그룹 그리고 양무관료(특히 외교관 출신) 그룹 등을 연결하는 서학 인적망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⁵⁾

코헨이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국의 학술과 사상은 광둥과 상하이와 같은 연해안 지역과 내륙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앞의 서학 인적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연해안 지역이면서도 상하이그룹과 광둥 그룹 간에는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 우선 두 그룹은 서학의 접촉 경로에서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상하이그룹은 처음 대부분 묵해서관이나 『신보』 등 신문사와 같은 서구인의 기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의 한어를 구사할 줄 아는 선교사들과 공동번역 작업을 통해 서학을 접하고 있다. 반면 광둥그룹은 어려서부터 직접 서구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유학경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접한 서학의 내용은 내용과 질적인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우선 상하이그룹이 접하는 서학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택되어진 것들로, 종교서적과 수학, 화학, 의학, 식물학 등 과학서적, 그리고 광산, 철도, 선박, 무기제조 등과 같은 실용지식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서구 역사와 정치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비해 광둥 그룹은 홍콩의 서구학교나 외국 유학을 통해 직접 서학을 접하였으며, 의학, 법학 등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접한 서학의 내용은 당연히 전공보다 훨씬 폭 넓은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로 상하이의 서학그룹은 대부분 과거(科擧)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불운의 지식인들로서 그들의 서학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처음 대다수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서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이러한 점은 장둔푸, 관쓰푸, 장푸시를 포함하여 왕타오와 선위구이에서 잘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한편 그들

24) 정관잉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夏東元, 『鄭觀應傳』,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1 참고.

25) 왕타오의 생애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Paul A. Cohen의 저서와 『張園老民自傳』, 그리고 張海林, 『王韜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3 참고.

은 대부분 장쑤성, 저장성과 같이 전통적 학문이 강했던 지역 출신으로, 서학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전통적 지식인으로서의 학자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과학자 그룹인 리산란이나 쉬서우, 화형팡은 어려서부터 수학이나 화학, 제조술 등의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적 호기심에 의해 서학을 접근한 대표적인 예이다. 즉 그들에게 있어 서학은 중서의 구분없이 보편적인 학문의 대상이었고, 독자적 이론의 창안(리산란)이나 실험과 실증적 입증을 통한 진리추구(쉬서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주요 활동은 번역을 통한 학문적 탐구와 교육이며, 대부분의 저술도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²⁶⁾

또 왕타오, 차이얼강, 선위구이와 같은 언론그룹은 과학자 그룹처럼 이론과 실증에 대해 천착한 것은 아니지만 풍부한 중국전통 지식과 글쓰기 능력을 발휘하여 시론과 정론적 글쓰기를 즐겼다. 이는 그들 중 일부가 여전히 과거제가 아닌, 정론이나 시론과 같은 책론으로 관료들의 인정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출사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문매체 등을 통한 새로운 지식권이 형성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⁷⁾

반면 광둥의 서학그룹은 우팅팡과 같이 과거시험을 추구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과거와 거리가 있는 교육제도 속에서 학습을 했으며, 그 결과 상하이 그룹에 비해 중국 전통학문에 대한 토대가 약했다. 특히 허치와 룡훙의 중문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교육을 중시하기는 했지만 이론적 탐구보다는 실천적 지식을 강조했으며, 광둥인답게 경제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서구인의 협조자나 고용인이 아니라 자립적인 경제적 토대위에서 독자적인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 덕분에 이들 중 탕팅수, 우팅팡 등과 같은 인물들은 일찍 양무관료들의 주목을 끌었고, 외교, 상업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관잉과 같은 인물은 당시 일반 지식인처럼 정론적 글을 즐겨 쓰기는 했지만, 광둥인으로서 상업적 마인드를 인정받아 리훙장의 막료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 학술적 영역에 있어서도 이들은 비록 적은 경우이지만 대부분 저술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개혁적 정론의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홍콩이나 마카오 등이 정치적 견해를 펴는데 상하이나 그 밖의 내륙보다는 훨씬 자유로웠던 점과도 연관이 있다. 즉 이들은 직접적인 서학의 보급 활동에 힘썼다기보다는 서학담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상하이의 서학 그룹과 광둥 서학 그룹은 공히 서구학술의 보편적 의의와 소위 세계화의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서구의 중국 권익에 대한 침탈에 민감히 반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상하이 그룹은 종교에 의한 문화적 침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물론 이들의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비판은 관쓰푸와 같이 유교적 입장에 근거한 경우도 있지만, 학리적 측면과 서구 종교의 서구 정치, 군사적 힘과의 결탁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였다. 다만 상하이 그룹 중 언론그룹은 줄곧 선교사 및 서양인과 협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서구종교와 중국문화의 조화와 절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비해 광둥그룹은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서구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²⁸⁾ 대신 상업적 방면의 침

26) 이들 과학자 그룹과 당시 장쑤와 저장지역의 학술적 특징, 그리고 그 지역 지식인들의 가치경향의 관계에 대해서는 楊念群, 앞의책, 제 4장 참고. 한편 왕타오는 비록 과학자 그룹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론활동 외에 강·절 지역의 학술적 특징과 연관 있는 학술적 연구의 경향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왕타오가 언론인으로서 널리 알려지기 전 그는 이미 학술적인 면에서 국내외로 널리 인정을 받았는데, 그의 대표적인 학술 저서는 그가 유럽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저술한 『보법전기(普法戰紀)』와 『법국지략(法國誌略)』이다. 이는 『해국도지(海國圖誌)』, 『영환지략(瀛環誌略)』과 같은 변경 및 외국에 대한 역사서이다. 과학자 그룹과 왕타오 등의 학문과 당시 경제학문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馮天瑜·黃長義, 『晚清經世實學』,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2, 제8장 참고. 따라서 왕타오는 상하이그룹 가운데서도 과학자 그룹과 언론그룹을 이어주는 중심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7) 당시 신문매체 등을 통한 시론이나 정론적 글쓰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민정기, 『晚清時期 上海 文人の 글쓰기 양상에 관한 연구-王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제4장 1절 참고.

탈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였다.

하지만 이들 그룹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식에 있어서 공통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하고 있던 밀접한 인적망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일종의 공통된 주제와 관점이 형성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서학과 개혁에 관한 담론과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는 당시 정관잉과 왕타오의 대표적인 개혁적 시론문이자 정론문을 통해서도 잘 보여준다. 정관잉과 왕타오의 직접적인 관계는 1880년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특히 왕타오가 상하이로 돌아와 격치서원 산장을 맡으면서 정관잉은 여러 차례 왕타오의 요청에 응해 시험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또 쑨원과 kang유웨이를 왕타오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타오가 정관잉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의 『이언(易言)』을 통해서였는데, 1879년 그가 일본여행을 하려할 즈음 정관잉의 친구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이언』(1880년 출판)을 가져다주었고, 왕타오는 다음 해에 기우생(杞憂生)이라는 필명으로 『이언』의 발문을 쓰고 있다. 『이언』은 정관잉이 상하이에 있을 무렵 1872년 경 이후부터 쓴 것으로, 바로 같은 시기 왕타오는 홍콩에서 언론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1874년부터 『순환일보』사설을 통해 비판적 정론을 발표하였는데, 이 시기의 글을 모아 1883년에 출판한 것이 바로 『도원문록외편(弢園文錄外編)』이다. 따라서 정관잉과 왕타오의 상기의 문장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왕타오와 『순환일보』의 명성으로 보아 정관잉이 일정 정도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 1879년 이후 쓰여진 왕타오의 문장 역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지만 정관잉으로부터 받은 깊은 인상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886년 이후 왕타오의 『만국공보』와 『신보』 등에 발표한 정론 및 시론과 정관잉의 『성세위언』(1894)의 관계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언』의 내용은 주로 서학동점의 새로운 상황에서의 중국의 새로운 변화정책을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 세무, 광업, 염정, 우정 등 행정정책, 의정(議政), 인재(人才, 즉 과거제와 관리임용), 외교 등에 관한 정치정책, 그리고 국방이나 치안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내용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구성 면에서는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원문록외편』은 전체 12편으로 구성되어 내용이 복잡하지만, 변법과 관련된 핵심내용은 전 3편에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1편에서는 변법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정치개혁과 학제개혁을 논하고, 2편과 3편에서는 양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 서구의 제도와 방법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성세위언』은 『이언』을 확대 증보한 것이지만 주목할 것은 후자에 비해 훨씬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변법의 핵심내용이 담겨 있는 전반부의 구성은 왕타오의 『도원문록외편』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상에는 편차가 있지만 기본 방향과 관점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²⁹⁾ 즉 입헌제 개혁, 과거제도 및 관리임용 제도 개혁, 중상정책, 서구의 근대적 학제 도입, 국제법에 따른

28) 광둥그룹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趙春晨 · 雷雨田 等, 『基督教與近代嶺南文化』, 上海人民出版社, 2002. 참고.

29) 『도원문록외편』과 『성세위언』의 전반부 일부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원문록외편』: 위도(原道), 원학(原學), 원인(原人), 원재(原才), 원사(原士), 변법(變法)(상·중·하), 중민(重民)(상·중·하), 치중(治中), 목린(睦鄰), 양무(洋務)(상·하), 변법자강(變法自強)(상·중·하)……; 『성세위언』: 도기(道器), 학교(學校)(상·하), 서학(西學), 여교(女教), 고시(考試)(상·하), 장서(藏書), 의원(議院)(상·하), 공거(公舉), 원군(原君), 자강론(自強論)……. 『이언』과 달리 『성세위언』 모두에 도기(道器)론에 실린 것은 그의 사상이 전자에 비해 더욱 강화된 체계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왕타오가 그의 『이언』을 위해 쓴 서문에서 정관잉의 사상을 도(道)와 기(器)로 귀납하는 것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 중시, 사회보장제도, 지방 향촌질서 재건을 통한 사회 안정, 산업화를 위한 기초시설 건설 등은 당시 공히 주장되던 개혁담론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세위언』은 당시 차이얼강, 런팅쉬 등 상하이 언론그룹의 협조 하에 광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서구 선교사들의 저역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³⁰⁾ 이는 이들 그룹간의 상호 교류와 영향이 단순히 인적차원이 아닌 지식과 사상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성세위언』은 19세기 말, 중국 서학담론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단지 정관잉 개인의 사유산물이 아니라 일종의 집단적 관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허치와 후리위안의 공저인 『신정진전(新政眞詮)』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신정진전』이 비록 보다 급진적으로 서구의 정치학을 직접 반영하는 등 양무운동의 개혁의 한계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 개혁의 중심내용은 『성세위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 저서는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동일한 상하이-광둥의 지식 회랑(回廊)속에 형성되고 있던 서학담론의 여러 관점과 주장을 이론화, 체계화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일정한 지식 네트워크의 공통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VI. 양학(洋學)에서 신학(新學)으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중국의 서학은 지역성(상하이-광둥)과 계층성(수재이하의 민간 지식인 집단)을 지니면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다양한 편차를 지니고 있다. 즉 리산란, 쉬서우, 화형광과 같은 과학자 그룹과, 왕타오, 선위구이, 차이얼강 같은 언론 그룹, 그리고 외국학문을 직접 접한 광둥그룹들은 서학의 경로나 서학 담론의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간에는 긴밀한 인적 유대를 통한 지적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차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서학담론을 형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중국 서학을 구성해 나간 서구 일부 선교사 그룹의 역할 또한 적극 평가해야 하며, 19세기 중국서학의 특징은 이들에 의해 규정 된 바 또한 적지 않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외국을 직접 견문한 귀쑹타오, 마젠중, 쉘푸청, 황쑨셴 등과 같은 외교관료 그룹은 이념성을 중심으로 점차 자신의 계층성을 벗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주며, 이후 무술변법의 실패 이후 많은 관료들의 서학에의 경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³¹⁾

30) 예를 들어 인용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대표작들을 보면 『국외방관론(局外傍觀論)』(Sir Robert Hart, 1866), 『중서관계론략(中西關係略論)』(Young J. Allen, 1875-1876), 『중미관계속론(中美關係續論)』, 『중서사대정(中西四大政)』(Timothy Richard, 1895), 『칠국신학비요(七國新學備要)』(Timothy Richard, 1892), 『자서조동(自西徂東)』(Ernst Faber, 1884), 『격화소양론(隔靴搔癢論)』(일본), 『중서견문록(中西見聞錄)』, 『신정논의(新政論議)』, 『보법전기(普法戰記)』(1871, 왕타오) 등과 당시 외교관들의 서구 기행문, 그리고 타임즈와 같은 서구 신문들이 있다.

31) 중요 외교관 그룹의 대부분은 이른바 정도의 출신이지만, 그 가운데 마젠중은 매우 예외적인 서학의 경로를 보여준다. 마젠중의 형제는 청말 민초 시기 외교와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독특한 가족인데, 이들이 서학을 접한 것은 기독교의 선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명말부터 중국에서 활동해 온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계통이었다. 마젠중과 그의 4형제들은 상하이의 쉬후이공학(徐彙公學, College of St. Ignace)에서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비롯하여 서학과 중학을 배웠다. 그 중 두 번째 형인 마젠신(馬建勳)은 일찍이 청귀친안(曾國荃)에 의해 발탁된 후 리홍장의 막료가 되었다. 또 네 번째 형 마상보(馬相伯)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1900년 이후에는 상하이 대표적인 근대학교인 진단대학과 복단대학을 창설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마젠보는 쉬후이 공학을 졸업한 후 형 마젠신의 소개로 리홍장의 막부에서 활동하였다. 1876년에 랑중(郎中)의 자격으로 유럽에 파견된 중국 공사 귀쑹타오를 수행하였으며, 곧 국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파리정치학원에서 수학하고 1879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귀국하여 리홍장의 막부에서 외교와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러한 다양한 서학그룹을 하나로 연결하여 19세기 서학을 변법이론으로 체계화하고 이론화한 것이 바로 왕타오, 정관잉과 후리위안이었다. 그 중 전자의 두 사람은 당시 경제문제와 정치개혁에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던 광둥그룹과 전통적 학문과 당시 중국정치내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개혁에 참여하고 있던 상하이그룹을 오가며 연계시키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을 일정한 문(文)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전통문인으로서의 재능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이는 서학이 중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의 지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이들에 의해 형성된 서학은 양무운동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과 사상의 경향은 양무운동이 아닌 무술변법운동에 더 가깝다. 중국의 지식계의 중심 시각에 보면, 서학은 처음 이학(夷學)에서 양학(洋學)으로, 그리고 다시 신학(新學)으로 그 의미와 지위가 변화하였는데, 신학으로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무술변법 시기였다. 변법운동을 이끈 다양한 그룹들, 예를 들어 Kang Youwei(康有爲) 그룹이나 Tan Sitong(譚嗣同), Chen Jizhen(陳熾) 등은 중국의 주변에서 시작된 서학을 새로운 시대의 신학으로 간주하고, 당시 주요 서학그룹에 의해 번역되거나 발표된 글을 통해 변법사상을 구축하였다. 특히 Kang Youwei 그룹의 활동은 바로 당시 서학 담론을 전통학술 속의 변혁담론과 다시 융합시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왕타오가 대신하여 상소문을 이홍장에게 전달해주기도 했던 쑨원 역시 이들 상하이-광둥의 서학 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상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 본 19세기 주요 서학그룹의 서학담론은 관(官) 주도하의 양무운동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술변법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양무관료들은 당시 서학 지식인들의 많은 건의 가운데 소위 급진적이라고 불리는 것(이들 대부분은 무술변법의 내용으로 담겨짐)들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였으며, 심지어는 장즈둥과 같이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서학은 민족주의의 특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보편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유교와 중국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등 전반적 서구화론자는 아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를 배척하는 문화적 보수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중국과 서구의 구분이 아니라 그 문화와 사상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가치의 보편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인 것이었다. 왕타오와 후리위안 등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동서 문화관과 대동사회의 이상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³²⁾ 또 리산란이나 쉬서우 등은 수학이나 서구 과학을 단순히 지엽적이고 실용적 학문으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9세기 말 장즈둥 등 양무파가 주창하던 중체서용관과 19세기 민간중심의 중국 서학 사이에는 상호 연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중서문화와 사상을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易言·이언 海國圖志』, 以文社.

32) 이에 대해서는 張海林, 「王韜의 '天下觀'與改革思想」, 林啓彥, 「王韜의 中西文化觀」, 林啓彥, 黃文江 主編, 『王韜與近代世界』, 香港教育圖書公司, 2000; 王榮祖, 「論胡禮垣的大同思想」, 『從傳統中求變-晚清思想史研究』, 百花洲文藝出版社, 2002 참고.

- 조훈, 『일리엄 밀론』, 그리심, 2008.
- 車培根, 『中國近代言論史』, 나남, 1985.
- Carl T. Smith, *Chinese Christians: Elites, Middlemen, and the Church i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 Charles Taylor, *Five Years in China: With Some Account of the Great Rebellion, and a Description of St. Helena*, New York: Derby & Jackson, 1860.
- Paul A. Cohe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Y. C. Wang, *Chinese intellectuals and the West, 1872-194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6.
- K. E. 福爾索姆著, 劉悅斌 · 劉蘭芝 譯, 『朋友·客人·同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寶璽等修, 『籌辦夷務始末』(同治朝), 第48卷, 北平故宮博物院影印, 1930.
- 尚小明, 『學人遊幕與清代學術』,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 梁啟超, 「五十年中國進化概論」, 『最近五十年:申報館五十周年紀念』, 申報館, 1922.
- 楊念群, 『儒學地域化的近代形態-三大知識群體互動的比較研究』, 三聯書店, 1997.
- 易惠莉, 『西學東漸與中國傳統知識分子-沈毓桂個案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93.
- 汪廣仁 · 徐振亞, 『海國擷珠的徐壽父子』, 科學出版社, 2000.
- 王韜, 『弢園老民自傳』, 江蘇人民出版社, 1999.
- 王韜, 『弢園文錄外編』, 上海書店出版社, 2002.
- 王先明, 『近代新學-中國傳統學術文化的嬗變與重構』, 商務印書館, 2000.
- 汪榮祖, 『從傳統中求變-晚清思想史研究』, 百花洲文藝出版社, 2002.
- 汪榮祖, 『走向世界的挫折-郭崇燾與道鹹同光時代』, 嶽麓書社, 2000.
-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80.
- 王渝生, 『中國近代科學的先驅』, 科學出版社, 2000.
- 汪曉勤, 『中西科學交流的功臣-偉烈亞力』, 科學出版社, 2000.
-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上海人民出版社, 1994.
- 李志茗, 『晚清四大幕府』, 上海人民出版社, 2002.
- 林啟彥, 黃文江 主編, 『王韜與近代世界』, 香港教育圖書公司, 2000.
- 張禮恒, 『從西方到東方-伍廷芳與中國近代社會的演進』, 商務印書館, 2002.
- 張仲禮 著, 李榮昌 譯, 『中國紳士-關於其在19世紀中國社會中作用的研究』,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8.
- 張海林, 『王韜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3.
- 鄭觀應, 『盛世危言』, 中州古籍出版社, 1998.
- 趙春晨 · 雷雨田 等, 『基督教與近代嶺南文化』, 上海人民出版社, 2002.
- 馮天瑜 · 黃長義, 『晚清經世實學』,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2.
- 何啟 · 胡禮垣, 『新政真詮』, 遼寧人民出版社, 1994.
- 夏東元, 『鄭觀應傳』,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1.
- 郝秉鍵 · 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以上海格致書院為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

민정기, 「晚淸 時期 上海 文人의 글쓰기 양상에 관한 연구-王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백광준, 「19세기 초 서양 근대 지식의 중국 전파-‘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91, 2017.

차태근, 「19세기 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中國現代文學』, 제33호, 2005.

차태근,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담론과 지식망: ‘중국총보(Chinse repository)’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32, 2005.

章暉 · 馬軍, 「遊離在儒耶之間的蔡爾康」, 『檔案與史學』, 第5期, 1998.

褚季能, 「甲午戰前四位女留學生」, 『東方雜誌』, 第3卷第11號, 1934. 6.

田中初, 「遊歷於中西之間的晚淸報人蔡爾康」, 『新聞大學』, 2003年 (冬).

(이 글은 차태근, 「19세기 중국 서학 그룹과 담론의 네트워크」, 『大東文化研究』(Vol. 52, 2005, 5-34쪽)를 바탕으로 대폭 수정한 것임/ 수정일자: 2019. 03. 08)